

秋史 金正喜의 濟州流配 教學思想 研究*

梁 鎮 健**

第 1 章 緒 論

第1節 問題의 提起

1. 研究方向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의 時代精神 (Zeitgeist)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주도적인 思想體系가 있게 마련이다. 시대정신과 사상체계의 정립은 따라서 한 시대의 精神文化를 구축하기 위한 대표적인 文化的 實踐이다.

그러한 정신문화와 교육과의 動的 關聯을 역사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教育思想史의 과제라면 『秋史 金正喜의 濟州流配 教學思想 研究』는 일차적으로 濟州流配라는 特殊性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문화적 실천에 대한 教育的 解明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본 연구는 秋史라는 위대한 인물에 대한 專有的 照明 이라기 보다 朝鮮代 濟州島에서 秋史라는 流配人과 濟州人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한 시대의 言說體系(discursive system)에 대한 분석적 성격을

* 이 論文은 1991年度 教育部 學術研究助成費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법론은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이데올로기 및 관념의 확산에 관한 연구로서 思想의 社會史(histoire des sociale des idées)¹⁾ 유형이다.

이러한 작업은 종래의 思想史가 몇몇 위대한 知性에 대한 해석에 치우침으로써 특히 社會·經濟史家들의 거센 도전을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궁극적으로 ‘知性’을 일상인의 ‘意識’의 수준에로까지 확장함으로써 사상사를 全體史(total history)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사상사 연구의 최근의 성과를 반영하고자하는 일단의 노력이기도 하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테면 F. Venturi 같은 이는 이러한 시도의 適合性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가 보기에 그러한 계획에는 관념들을 연구함에 있어 그것들의 창조적이며 역동적인 탄생 계기를 파악하지 않은 채 이미 그것들의 정신적 구조들로 되어버린 시기를 연구하려는 위험성이 있다²⁾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의 확실히 규정된 한 부분이나 심지어는 개인의 규모에 있어서의 지적 선택과 사회적 입장과를 連接시킴으로써 문제를 새로이 설정하려는 노력은 사상사 연구의 최근 과제이다.³⁾ 따라서 우리가 결정론적인 환원주의에 빠지지 않은 채 신념, 가치, 표상의 체계와 사회적 입장과의 연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사상의 사회사와 같은 방법론이 유효하다.

이로써 추사에 대한 전유적 조명으로 한정되던 위로부터의 사상사(the history of ideas from above)에서 사용되던 분석의 기술들은 이제 다른 토양으로 전위된다. 다시말해 濟州人과 같은 “日常人”은 당대의 관념이나 신

1) Robert Darton, "Intellectual and Cultural History," in The Past before Us: Contemporary Historical Writing in the United States, ed. Michael Kammen (Ithaca, 1980), p. 337.

2) Franco Venturi, Utopia a riforma nell'Illuminismo (Turin, 1970) p. 24.

3) Natalie Z. Davis, Society and in Early Modern France (Stanford, 1975) 등이 대표적이다.

념을 어떤 식으로 향유했느냐 하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추사라는 특수한 지성의 내용 분석에 停滯되기 보다는 그 지성의 내용에 관해 수행된 활동에 대한 분석으로서 오히려 계량사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民衆의 思考의 영역까지 흡수하게 된다.

기존의 추사에 대한 연구들은 書藝의 대가라는 측면에서 대개 그 개인의 예술관과 예술활동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이며 이밖에 문학적 논구가 부수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어떤 형식으로든 그에 관한 교육적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게 사실이며 더욱이 9년여에 걸친 제주유배 동안에 전개되었던 그의 教學活動⁴⁾에 관한 논의는 拙稿⁵⁾를 제외하고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기존의 예술적, 문학적 논의는 추사 개인의 업적에 관한 분석으로서 본고가 止揚하려는 전유적 조명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정신상태는 아무리 그가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同時代의 타인들과 공유하고 있는 어떤 것이라는 점에서 사상의 사회사적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意思의 交通形態(Verkehrsformen) 즉, 의사의 전달양식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적 논의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추사의 제주유배 교학활동은 의사의 전달양식을 가장 극명하게 재현한다는 점에서 논의가 더욱 중요하며 궁극적으로 전체사로서 사상사 연구의

4) 「教學」이라는 용어는 「教育」을 보다 넓게 개념화한 것이다. 원래 學 또는 學問이라 하는 것은 지식의 체계 또는 지식의 체계를 쌓아 올리는 인간의 노력을 의미한다. 學이란 글자의 原義는 效이다. 效는 배움 즉, 모방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先人の 경험 및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가르침(教)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어원적으로 말해도 한 편이 가르치고 한 편이 그것을 배우는 것이므로 '教'와 '學'은 경험 및 지식의 전수를 각각 반대측에서 파악한 것이 된다. '教'의 가장 중심적인 의미, 중요한 것은 '道'이다. 學이란 教 혹은 道를 배우는 것이다. 子思가 말한 「天命之謂性 率性謂之道 修道之謂教」라는 말과 「則天明 遵聖法 述此篇 爲師者 知所以教而弟子 知所以學」이라는 의미에서 「教學」도 되려니와 보다 현대적으로 교육과 학문을 통한 自己實現, 人格實現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教學活動이란 교육과 학문을 통해 自己實現 혹은 人格實現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형식, 비형식의 교육적 제반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5) 拙稿, 秋史의 濟州 教學活動 研究, 『耽羅文化』, 第6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7. 拙稿, 秋史 金正喜의 濟州師弟 淵源考, 『德齋 申瑑俊 博士 華甲紀念論叢』, 德齋申瑑俊博士遷曆紀念會, 1989.

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2. 研究課題

추사의 제주 교학활동이 구체적으로 서술된 문건은 없다. 流配書簡을 통해 겨우 얼마쯤의 기록을 남기고는 있지만 체계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하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교학활동이 다만 억척일 뿐이라거나 혹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어떤 종류의 方法論의 前提를 해둔다면 여러가지 종류의 단편적인 언급들을 유일한 실마리로 하여 제주 교학활동의 면모를 재구성할 수 있다.

과연 추사의 제주 교학활동 면모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그렇다면 체계적인 문건이 없는 만큼 오로지 남아있는 단편적인 언급들의 양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추사가 제주유배 기간에 썼던 書簡이나 漢詩 또는 주변의 破片的 記錄 등은 그것이 매우 단편적 내용이라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것이 비록 단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련의 제주 교학활동 “體系”의 구상은 가능하다.

추사의 제주 교학활동을 언급한 내용들은 그 단편성에도 불구하고 두가지 의미에서 일관성을 갖고 있다. 첫째, 그것들은 추사 교학활동의 지속성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한 지속성은 추사의 학문과 예술의 경험주의적 인식론에서 비롯되는 원칙의 문제이다. 그는 인간의 천부적 정신능력은 부단한 경험적 수련의 결과로서만 발현된다는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교학활동의 지속을 정당화하였다.

둘째, 또한 그것들은 추사 교학사상의 지속성을 아울러 증거하고 있다. 그는 작가의 정신성이 발현되지 않은 작품은 한낱 기술이라고 규정하고 예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같은 인간 정신에 대한 信賴와 嚴肅主義는 추사 교학사상의 핵심으로서 그것은 제주 교학활동에 있어서도 견지된 과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편적인 내용들을 실마리로 하여 추사의 제주 교학활동 전모를 재현한다는 생각은 여러가지로 무모가 뒤따르는 일이

다. 이 무모의 극복이야말로 본 연구의 과제이며 부담이다. 단편적인 내용들을 단순히 조합시켜 놓을 것이 아니라 그 부스러기들을 버무려 추사가 행하였던 제주 교학활동의 전모를 밝히고 그 사상의 궤적을 추적함은 따라서 이 연구로 마무리 지을 일이 아니다.

第 2 章 本 論

第 1 節 秋史의 教育生涯 評釋

1. 教育生涯

추사의 교육생애 始原은 北學에 그 근원을 둔다. 소위 淸朝文化와 서양문물의 도입으로 나라의 부강을 도모하고자 했던 朝鮮後期 實學의 한 학풍인 北學의 학맥은 17, 18세기 사상계의 핵심부에 위치했던 老論 성리학과 중 洛論계통을 잇는 젊은 학자들에 의하여 형성된다.

이들 일련의 소장학자들은 전통적 사상계의 정통을 계승한 父祖들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한편으로 子弟軍官의 자격으로 燕行하여 선진화된 청의 문물을 직접 견문함으로써 점차 北學思想을 이룩했으며 19세기 초반에 이르자 楚井 朴齊家의 제자 秋史 金正喜(1786~1856)에게 계승되고 이때에 와서 비로소 학문적으로 심화 결실한다.

19세기 초반의 이러한 흐름은 결국 그 이전 시대인 正祖朝의 문예부흥의 영향으로 이즈음에 이르면 詩·書·畫 겸수의 문인취향이 고조된다. 이것은 청의 藝苑을 풍미하고 다시 조선학예에 영향을 미쳐 추사가 三絶의 高峰을 이루고 다시 그의 문하에 무수한 제자를 배출하는데 따른 결과였다.

대체로 추사의 수업시대 序幕은 그가 6세가 되던 해 쓴 立春帖을 박제가가 보고 「吾將開而成之」의 인연을 강조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⁶⁾ 이러한

6) 朴齊家의 師事說에 대해 異論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확대되어 臆矣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그 근거를 따져볼 필요있다. 閔奎鎬의 「小傳」에 기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돈독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도 같으나 「貞齋閣文集」 卷四에 「答大雅正喜」라는 편지글이 지극히 다정한 것으로 보아 암암리에 영향을 끼쳤을 친분이었리라 짐작된다.

추사와 초정의 師事關係는 15세 때 42세의 초정을 첫스승으로 맞이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초정의 제4차 연행 바로 직전 해인 正祖 24年(1800)부터 시작하여 연행을 다녀온 純祖 1年(1801) 이전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이 절정이었다. 초정은 燕巖 朴趾源의 우수한 제자였으며 茶山 丁若鏞의 친애하던 學友였기 때문에 이로써 추사는 초정을 통해 연암이나 다산과 같은 당대 先進的 지식인들의 영향을 직, 간접으로 받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추사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교육적 충격을 던져준 것은 25세 때의 燕行이었다. 이때 추사는 翁方綱으로 부터 「經術文章海東第一」⁷⁾이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학문은 이미 높은 수준에 달해 있었으며 이것은 生父 金魯敬의 학문적 안목과 正祖의 문예부흥 영향으로 길러진 申綽, 丁若鏞, 李德懋, 朴齊家的 학문적 경향에 힘입은 바가 컸다.⁸⁾ 연행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추사의 학문적 안목을 새롭게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인데 이른바 가시덤불 무성한 황무지 같은 자신의 정신세계를 툭 터진 네거리로 인도했다(心眼恍然當通衢)⁹⁾고 추사는 토로했다.

2. 教育思想

추사가 교류한 청의 考證學은 송·명의 理學이 지나치게 철학적으로 흘러 현실구제의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夷狄에게 나라를 빼앗긴 사실을 반성함으로써 일어난 학문으로 사실에서 진리를 구하자(實事求是)는 학문목표 위에 징험하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無徵不信)는 철저한 고증방법을 취하게 되었다.

따라서 經史 기록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變改가 어려운 金石文의 고증이 필수적인 학문방법으로 채택되고 역대 금석문의 섭렵을 통해 書風과 畫風의 변천을 추구하는 學藝一致의 경지에까지 이른다. 이렇게 역대의 학

7) 藤塚隣, 『清朝文化東傳の研究』, 日本, 國書刊行會, 1975, p. 87.

8) 『阮堂先生全集』, 卷1, 鄭寅普 序, p. 6.

9) 『阮堂先生全集』, 卷9, 「覃溪書藏之北移扁其齋曰寶覃仍次覃溪寶蘇齋韻」

풍이나 書畫風을 음미하는 과정에서 그 섭렵을 기반으로 하여 새롭게 조성된 학풍이 곧 考證學이다.

이러한 고증학적 전통으로 부터 배태된 추사의 교육적 지향이 곧 實事求是이다. 실사구시는 經世致用과 利用厚生과 함께 조선후기 實學의 세 유파 중 하나로서 뒤의 두 경향이 주로 民生의 물질적 안정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그것은 文化史에 기초하여 經世의 근본적 방법을 모색하는데 관심을 집중하였다.

즉 경세치용과 이용후생이 급박한 위기 상황의 대응책으로서 當代的, 姑息的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면 실사구시는 시공을 확장한 문화의 전영역을 향하여 학문적 관심을 개방함으로써 보다 근원적이고 확실한 실용과 실리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사실 추사는 학문하는데 있어 가장 요긴한 도리가 실사구시라고 지적¹⁰⁾함으로써 새로운 教育哲學의 출현 가능성을 예고했다. 새로운 교육철학은 나아가 종래의 교육목적, 내용,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적 요구를 함의하고 있었다.

특히 실학자들은 당대 교육부실의 요인이 과거합격을 통한 입신영달에의 집념에서 유래되었음을 지적하였으며 교육풍토의 쇠신을 위해 봉건적 士農工商에 입각한 직업관의 혁파를 강조하였다. 또한 학문의 올바른 길은 실사구시에 의하여 실천하는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여 공소한 관념적 학문을 떠나 실생활에 적용되는 실천적 교육관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실천적 교육관의 강조는 종래의 형이상학적 도덕학에의 반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사에 이르러 經驗主義的 認識論 차원에서 철저히 강화된다. 즉 그에게 있어 지식의 대상은 도덕, 정치, 법률, 건축, 의복, 경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것이며 이것들은 곧 자기의 경험에 의하여 인식된다¹¹⁾는 입장이다.

10) 『阮堂先生全集』, 卷1, 實事求是說, 「實事求是此語乃學問最要之道」

11) 『阮堂先生全集』, 卷7, 書韓文公原道後, 「自仁義道德之旨禮樂刑政之義室於宮室衣服粟米麻絲可謂盡格致之用矣格致者體於身驗於事而已矣」

그런데 추사 교학사상의 또다른 특징은 실사구시적인 것 외에도 禪家的 面貌를 동시에 보여준다는데 있다. 즉 그는 비록 성장해 온 教育過程과 立身의 대외적 목적은 儒家的이라고 할 수 있지만 工夫가 크고부터는 禪家風의 영향을 적지않게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추사의 思想遍歷에는 詩友와 道交로서 막역했던 草衣意恂의 영향이 다대하다. 大菴寺의 13대 宗師로 추앙된 草衣는 널리 禪知識에 參學하고 또 三藏에도 통하여 教·禪에 얻은 바 있는 근세의 高僧으로서 추사는 물론 이요 茶山을 비롯한 당대 名士와 교류가 깊었다.

결국 추사의 教育生涯는 크게 세가지 흐름으로 대별되는데 그 첫째가 초정으로부터 연유되는 執贄의 師弟關係가 그것이라면 둘째는 燕京學界와 맺은 衣鉢弟子¹²⁾의 경험이며 셋째가 곧 초의와 관계된 禪家의 師友關係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사의 폭넓은 교육적 경험은 당대의 조선학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그의 제자들에 의해 풍미된다. 추사는 「阮翁門下三千士」¹³⁾라는 詩語에서 시사하듯이 문하에 무수한 제자들을 배출하였고 그들 중 대개가 중인출신으로서 詩·書·畫 三絶의 藝人들인 그들은 경험주의적 인식론을 내용으로 하는 스승의 학문적 입장을 승계하게 되며 그 인맥은 개항 이후에 까지 면면히 계승된다.

第 2 節 秋史의 流配教學思想

1. 流配와 教學活動

추사의 학문적 활동은 憲宗 20년(1840) 尹尙度 獄事가 재론되기 전까지 평탄한 出仕期를 보내다가 55세에 이 사건이 발미되어 絶島安置라는 가혹한 형벌을 받게되며 결국 9년동안 濟州島 大靜縣에서 流配刑을 치루게 된

12) 翁方綱은 書札을 통해서 秋史를 衣鉢弟子로 승낙했다.

13) 『姜瑋全集』, 上, 「同白小香金松年再會紅藥館送別」

다.¹⁴⁾ 추사의 제주유배는 나이 어린 헌종이 즉위하여 純元王后 金氏가 垂簾聽政을 하게 되어 安東金氏가 득세하게 되면서 헌종의 외가인 豐壤趙氏에게 세도를 빼앗길 것을 염려하여 안동김씨가 풍양조씨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술책의 하나로 풍양조씨와 가까운 秋史一門을 탄핵함으로써 빚어진 政爭의 일환이었다.

조선조 刑律制度의 하나인 유배는 정치적으로 重罪를 범한 자에게 사형까지는 과하지 않고 遠隔地로 보내어 종신토록 귀환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로서¹⁵⁾ 그 본질은 자유형과 비슷하나 사형의 換刑으로 대치되는 死刑緩和法으로 주로 이용되었다. 대개의 유배인들은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유배지의 원근이 책정되었고 형기는 원칙적으로 무기종신형이었다.

유배인은 일단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인으로서 減一等된 죄인이었으며 그들의 성분은 대개가 정치범이었다. 정치범으로 단죄되어 유배된 죄인은 사면령이 내리든지 정치정세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생 귀향할 수 없었다. 유형 중에 가장 가혹한 조치가 이른바 絶島安置로서 특히 제주도와 같은 섬은 罪名이 특별히 중한 자들에게 해당되었다.¹⁶⁾

당쟁이라는 조선조 특유의 정쟁은 優勝鬪爭의 성격을 띤 일종의 適者生存으로서 이 암투에서 상용된 유배형은 선비의 현실적 집착을 거세하고 도태를 결과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유배의 그러한 거세와 도태의 기능은 유배인들로 하여금 진정한 限界狀況을 절감케 했다. 하여 철저히 難破(Scheitern)하여 가장 내적인 핵심에 있어서 破産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가하면 일부는 관여된 요인들의 변화와 재생산을 통하여 유배를 비판적 환경으로 인지하는 忍耐性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유배지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적절히 조화하여

14) 『憲宗實錄』, 卷七, 六年 庚子 九月 辛卯條, 「鞠囚罪人正喜大靜縣」

15) 『大明律直解』, 名例律五刑名義, 「流配謂人犯重罪刑殺流法遠方終法遠方終身不得回歸」

16) 『大典會通』, 刑典 推斷.

이른바 '發展의 低流'(Entwicklungssog)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추사의 제주유배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重刑의 유배인인 경우는 適所의 牧使나 鄉吏의 배려로 幽閉되는 일을 겨우 모면할 수 있는 경우¹⁷⁾도 없지 않아 유배지 주민들과의 인간적인 접촉이 가능하기도 했다. 추사는 이런 기회를 빌어 제주도 주민들과 興學敎化的 교류를 통해 죄수라기 보다는 他鄉의 전문을 넓히면서 潛心道學하며 인격을 수양하고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삶의 한 실됨으로 교육자 또는 자기 완성자로서 많은 성과를 남겼다.

따라서 추사는 제주도 현지에 권위적으로 관계하기 보다는 현지의 사정에 조화하여 동화함으로써 현지 주민들의 지식과 교양을 자극하고 교양시킴으로써 제주도 나름의 독특한 鄉堂文化圈 형성을 주도할 수 있었다.

조선조의 선비들은 修己治人(개인의 인격과 학문적 소양을 닦은 후에 남을 다스린다)을 전제로 한 士大夫(학자관료)로서 학문적 소양으로 정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學者이면서 政治人이었고 政治人이면서 또한 學者였다.

따라서 그들이 유배되거나 정계에서 은퇴할 시는 학자적 측면이 부각되기 마련인데 특히 政治鬭爭의 결과로 야기된 유배의 경우에는 그러한 학자적 생활이 反對給付로서 더욱 치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배인들은 교학활동을 통해 儒敎的 敎養을 바탕에 간 많은 양의 知的遺産을 유배지에 남기게 된다.

Flitner는 人間과 敎育에 관한 관점을 첫째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발달과 성장과정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生物學的 考察方式, 둘째 敎育을 문화화와 사회화의 관점에서 보는 歷史的-社會的 考察方式, 셋째 敎育을 객관적 정신이 담긴 전통의 수행자들과 미성숙한 인간과의 만남 속에서 정신적

17) 이것은 어떤 일정한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며 순전히 牧使나 鄉吏의 私的 關係(personal relationship)에서 이루어진 배려의 차원이다. 특히 유배인의 政治的 輕重과 政治的 狀況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루어졌다. 추사의 경우 제주목사 李源祚나 張寅植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인 세계를 깨우쳐 주는 精神的 覺醒으로 보는 입장, 넷째 교육을 양심과 믿음의 각성을 통한 人格形成으로 보는 입장으로 대별했다.¹⁸⁾ 여기서 유배인의 교학활동은 대개의 경우 가르치는 사람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개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세번째의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배인의 교학활동에 의한 教育의 關係(Erziehungsverhältnis)란 전통을 생생하게 그 안에 품고 있는 존재와 그와 같은 전통들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전통의 질서들과 성과들의 의미내용에 충분히 성숙해 있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정신적인 교류에서 발생하는 그 무엇이다.¹⁹⁾

이러한 의미에서 유배인의 교학활동에 의한 교육이란 사회문화적 질서와 정신적 활동들 안에 내포된 모든 기본 방향들 속에 담긴 事實性(Sachlichkeit)에 이끄는 깨우치는 활동이다. 이러한 정신적인 교류는 만남의 형식을 띠게 되며 여기서 정신적 세계와의 역사적 만남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2. 秋史의 濟州教學活動

1) 濟州人의 學脈

추사의 제주교학활동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후일 그의 학통을 승계하고 『阮堂集』五卷五冊을 편집하였으며 유배기간 동안에 두 차례나 내도했었던 內從姪 閔奎鎬가 쓴 「小傳」에 소상하다.

귀양사는 집에 머무니 멀거나 가까운 데로부터 책을 짚어지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장날같이 몰려들어서 겨우 몇달 동안에 人文이 크게 개발되어 文彩나는 아름다움은 서울풍이 있게 되었다. 곧 탐라의 거친 풍속을 깨우친 것은 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²⁰⁾

18) W. Flitner, Allgemeine Pädagogik, Stuttgart : Klett - Cotta, 1950, p. 28.

19) 拙稿, 朝鮮朝 濟州 教育思想史 研究, 檀國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1991, 參照.

20) 『阮堂先生全集』, 卷1, 阮堂金公小傳, 「居謫舍遠近負者如市數月人文大開彬彬有京國風耽羅開荒自公始」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루 아침의 결과가 아니다. 그의 노력은 우선 자신에 대한 철저한 학문적 긴장과 그리고 제주도의 나쁜 풍조에 대한 직지에서 비롯되었다. 학문적 긴장이란 유배라는 상황 때문에 탈진할 수 있는 자신을 추스려 「마음의 고통스러움과는 상관없이 옛처럼 글을 읊으며 지내는」²¹⁾ 정신을 견지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주도의 나쁜 풍조라 함은 하나는 無知의 풍조요 다른 하나는 科擧 위주의 편협된 공부 풍조를 말한다. 특히 후자의 문제는 실학자들이 당대 교육부실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던 바로 그 사안이다.

내가 여기 처음 왔을 적에 자못 九經의 빛을 보여 주고 文選의 理를 설명해 주었는데 모두가 당황만 하고 머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마치 모기부리가 철벽을 만난 것과 같으며 혹 와서 묻는 것이 있다면 이는 「史要聚選」 따위였고 아니면 무슨 글제의 서두와 목을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는 것뿐이었소.²²⁾

이러한 풍조를 직시하며 추사는 제주인들과 興學敎化의 同化를 통하여 교육사상의 수준 높은 자극과 변화를 예고하였다. 왕성한 秋史人脈 형성이 바로 그 증거이다. 姜師孔, 朴啓瞻, 許琬, 金于民, 李時亨, 金麗錐, 李漢雨, 金九五, 姜道淳, 姜琦爽, 金左謙, 洪錫祐 등이 제주도에서 그와 師友講習의 禮를 통해 관계맺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신분계층은 양반사대부를 제외한 넓은 의미의 하층계층으로서 委巷階層이었다.

이들 가운데 강도순은 추사가 이적하여 머물렀던 집주인으로 추사의 영향으로 후일 濟州筆苑으로 추앙된다. 특히 강도순의 가계를 통한 추사의 영향은 독특한 구조를 통해 후대에 多大하게 승계되었다.

21) 『阮堂先生全集』, 卷2, 與懋兒, 「此心良苦吾如舊吟藝」

22) 『阮堂先生全集』, 卷4, 與張兵使, 「走之初來耶頗示之以九經之色說之以文選之理皆恍不人如蚊嘴鐵壁或有來問者是史要聚選不爾則某題之頭項 當作如何」

遠惡의 유배인들이 갖게되는 성향은 대체로 體制批判的이다.²³⁾ 그러한 성향은 유배지 현지주민들에게도 유포되기 마련이며 비록 그 성향 표출이 노골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만남의 저변 분위기는 유배적 갈등과 무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렇게 유포된 유배인들의 성향은 관계한 주민들의 가계 또는 제반 환경을 통해 후대로 계승된다. 이를테면 제주도 대정 지역에서 엿보게 되는 叛骨的 性向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즉 이것은 조선조 최악의 유배지였던 대정이 유배제도로 부터 가능하였던 역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추사와 관계하였던 姜道淳의 후손 가운데 姜遇伯은 1901년의 소위 李在守亂 또는 聖敎亂으로 불리우는 농민항쟁의 장두 가운데 한사람이었다. 또한 姜文錫은 일제하에서 漢拏義塾을 열고 인재육성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등 교육사업에 힘썼으며 나아가 1948년의 4·3사건 당시 좌익계의 거물로서 활약했던 李承珍은 강문석의 사위였다. 이승진 역시 중종대 유배인 李世蕃의 후손이며 또한 이세번의 선대인 李在守는 1901년 이재수란의 바로 그 장본인인데 이렇듯 체제비판의 승계구조는 복잡미묘하다.²⁴⁾

그런가하면 李漢雨는 추사가 제주에서 만난 가장 격조 높은 從遊者였다. 이한우는 시에 능하기도 했었지만 姜琦爽, 吳承鉉 등의 유림들과도 종유하며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던 당대 제주의 師表였다. 安達三, 金義正, 李啓徵 그리고 高永旻 등이 그의 제자들이었는데 당시 道學으로는 안달삼을 詩學으로는 김희정을 南洲 第一人者로 꼽았던²⁵⁾ 것을 보면 이한우의 비중이 실감된다.

23) 이에 대해 異論의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體制批判的이란 君王이라는 체제의 象徴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상징을 保衛하는 政治的 構造에 대한 비판을 의미한다.

24) 拙稿, 濟州流配人의 開化敎學活動研究, 『民族文化研究』, 第23號,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0, 參照.

25) 吳文福, 『瀛州風雅』, p. 227.

안달삼과 이계정은 후일 장성의 蘆沙 奇正鎮 문하생²⁶⁾으로 활약하게 되고 김희정은 勉菴 崔益鉉이 제주도에 유배왔을 때 문인이 된다.²⁷⁾ 이들의 학문적 기초가 이한우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볼 때 이한우는 당대 제주 교학질서의 정초적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한우가 추사와 종유할 당시 이한우의 학문적 수준은 이미 크게 이루어진 후이며 이러한 정도의 學人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길은 지식이 아니라 인격과의 해후일 수 밖에 없다. 이한우의 「題秋史先生壽星草堂」²⁸⁾이라는 漢詩에서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秋史人格과의 만남은 처음부터 성공적이었으므로 추사를 숭앙하게 되었으며 추사 또한 그의 유배거실인 수성초당을 개방하였던 것이다. 그러하였기에 추사와 이한우는 함께 격려하는 同道의 知己일 수 있었다.

또한 추사는 金石의 가치를 書體에 직결시키고 서법연구의 주안점을 金石學에 두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書道를 강조하였다. 그의 서법은 조선 중기 임진왜란 이후 현저하게 쇠퇴한 것을 청대학술의 영향에 근거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체득, 대성한 立論이기 때문에 서도에 큰 강조점을 두었던 것이다. 謫所에서 그의 독특한 서법인 秋史體를 완성시켰을 정도이고 보면 추사의 서도에 대한 열의가 가늠된다.

正宗朝 제주 여류자선가 金萬德의 유덕을 찬양하여 그의 養孫인 金鍾周에게 가문을 송찬하는 「恩光衍世」라는 친필의 額²⁹⁾을 주는 등 추사는 자신의 글씨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열의를 보전시켜 나갔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사의 영향으로 서도에 능하여 제주필원으로 수록된 이가 김구오, 강

26) 尹榮善, 『朝鮮儒賢淵源圖』, 參照.

27) 『勉菴集』, 年譜, 乙解四月條, 參照.

28) 吳文福, 『瀛州風雅』, 「千里南溟一草堂 聖恩許見壽星光 孤衷夜夜焚香坐 感泣頭邊白髮生」

29) 이때 「金鍾周大母大施烏氎被殊異之恩至入金剛山縉紳皆紀傳詠之古今稀有也書贈贈此扁以表其家」라는 내용을 함께 주었다.

도순, 박계첨 등이다. 특히 박계첨은 추사체를 정득하였다고 하는데 추사가 방면되어 육지로 가서 그를 붙렸을 때 주변의 疾視로 독살된다.

이러한 질시는 비단 박계첨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추사와 막역하였던 제주인 吳進士(성명 미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곳 사람들이 의당 그대를 애석히 여겨야 할 터인데 비단 애석히 여길 줄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 말살하려고까지 하니 이렇기에 阮籍의 途窮이 있게 되는 까닭이라 바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겠소.³⁰⁾

유배인이 高位政客일 수록 일부 제주인들과의 관계는 매우 특이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다른 무엇보다 解配 후의 政治勢의 복귀에서 비롯되는利害가 그런 관계를 가능케 하였던 기본 動因이었다. 질시 또한 그런 관계의 연장에 놓여있는 문제였다.

서법과 함께 논의되는 것이 篆刻이다. 원래 전각은 중국의 秦·漢代에서부터 활발하게 궤도에 올라서 宋代에 이르러 전각의 감상이 비롯되었다. 전각의 서체는 漢代에 극도로 발달했다가 唐·宋에 이르러서는 그 격이 매우 떨어졌다. 그후 元代에 이르러 복고를 내세웠고 清代의 考證學과 더불어 金石學의 발달을 보게 됨에 따라 전각이 면모를 크게 일신하였으며 특히 鄧石如는 漢印의 刻을 본받아 새로운 篆刻風이 일어나게 되었다.

추사는 이에 영향을 받아 古印譜를 求得하여 직접 秦·漢의 實影을 본받게 되어 그의 전각은 清代의 그것을 뛰어 넘은 眞境을 스스로 닮게 되었으며 점차 그의 독특한 전각풍을 이룩하게 되었다.³¹⁾

추사는 제주인들에게 刻하는 방법도 가르쳤으며³²⁾ 이러한 노력은 金九五에

30) 『阮堂先生全集』, 卷4, 與吳進士, 「此中之人固當愛惜左右非徒不知愛惜從以抹殺之此所以阮途之窮而直令人寒心」

31) 金應顯, 『韓國의 美』, 中央日報社, 1981, pp. 207-220.

32) 『阮堂先生全集』, 卷2, 「使此中學徒輩摹刻」

게 승계되었고 이어 김구오의 아들 愚齋가 정통을 이었고 우계의 아들 金義男이 家法을 따랐다. 김의남의 전각은 洪鍾時로 이어졌으며 이것을 朴判事(성명 미상)가 승계하였다. 홍종시는 書法과 篆刻 등에 있어 「秋史淵源書法入神」이라는 世評이 시사하듯 추사를 비교적 제대로 계승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는 『阮堂先生書法總論』이라는 著도 남겼다.³³⁾

姜師孔이 추사의 친필을 받아 刻하여 대정향교에 懸板했었던 예나 제주인 가운데 刻 잘하는 사람이 죽자 이를 추사가 매우 애통해 하였던³⁴⁾ 예가 시사하듯 추사를 통한 전각의 보급이 매우 활발했었다.

2) 來訪人의 人脈

이렇게 추사와 제주인들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조선조 후기의 제주도 문풍진작이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추사의 安置된 생활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來島를 통해 계속되었던 秋史學派의 교학적 열의 그 자체에도 그러한 진작의 요인이 내포되어 있었다.

추사를 찾아 來島했던 사람으로는 草衣大師, 許維, 姜瑋, 閔奎鎬 그리고 具聖業, 鄭元鍾 등이 있었으며 이들은 다수가 사대부에서 한 격 떨어지는 中人階層으로 추사와 師友, 師弟의 關係였다. 그 밖에 제주목사 李源祚나 제자 李尙迪과의 교분도 아울러 주목을 요한다.

초의는 추사를 만나기 위해 다섯차례나 제주도를 방문했을 만큼 교분이 두터웠는데 禪理와 文藝 및 茶道로 더욱 交情을 정교히 하였다. 원래 초의는 茶와 禪이 둘이 아니며 禪과 詩가 둘이 아닌 不二의 사상을 펼치는 동시에 茶經인 『東茶頌』과 『茶神傳』을 저작하고 특히 白坡의 『禪門手鏡』을 반박한 『四辨漫話』로 유명하였다.³⁵⁾ 추사는 이러한 초의로 부터 禪學風의 영

33) 『研濃先生遺墨』, 參照.

34) 『阮堂先生全集』, 卷2, 「而此中善刻者間已化去是切悶然」

35) 金煥泰, 『韓國佛敎史 下』, 『韓國文化史大系』, 卷12,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0, pp. 327-335.

향을 받았다.

초의와 관련된 유배한시 가운데 「銀魚爲鼠偷示艸衣³⁶⁾」는 추사의 제주도 사정과 함께 선가적 풍모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시다. 원래 이 시는 銀魚라는 별미를 먹는 풍요롭고 즐거운 삶으로서의 일상을 노래한 것으로써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구는 하나의 절실한 소망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소망이 좌절되었을 때 그것을 삭이는 여유를 보임으로써 그 소망을 악착한 탐욕이 아닌 정당하고 건강한 욕구로 형상화해 내고 있는데 불교적 達觀의 일단을 보여준다.

한편 초의는 제자 許維를 추사에게 소개하여 그의 門下에 입문케 함으로써 南宗畫를 본 궤도에 오르게 하는데 추사가 압록강 以東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을 만큼 허유는 큰 족적을 남기게 된다. 그는 추사를 만나기 위해 세차례 제주도를 방문하는데 1841년 2월부터 6월 초까지 4개월 동안 스승의 수발을 들었고 1843년 7월 부터는 제주목사 幕下로 渡海하여 이듬해 봄까지 10여개월을 配所 내왕하며 가르침을 받는다.

초의에게 보낸 서간에 刻苦修爲하는 師弟之精이 자세하다.

허치는 날마다 곁에 있어 고화와 명첩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건지 지난 겨울에 비하면 또 몇 격이 자랐다네. … 현재 오취 불의 진영이 실린 수십 책이 있으니 사가 만약 그것을 보면 반드시 크게 욕심을 낼걸세. 허치와 더불어 나날이 마주 앉아 펴보곤 하니 이 즐거움이 어찌 다하리오. 경탄하여 마지 않는다네.³⁸⁾

허유의 문인화풍은 아들인 許瑩, 손자 許權, 조카 許百鍊 등으로 승계되

36) 『阮堂先生全集』, 卷9, 「五十銀條針生花 來自江亭漁子家…夜來穴隙壯哉鼠 魚盡了無遺寸許…草衣老師適在傍 彼自茹素看尋常」

37) 『阮堂先生全集』, 卷2, 與申威堂觀浩, 「許癡尚在那中耶…鴨水以東無以作矣」

38) 『阮堂先生全集』, 卷5, 「許痴日在傍側多見古畫名帖比之前冬又長幾格恨未令…有五百佛眞影數十冊若見之必大生欲矣與許癡日日對閱此樂何極遠外艷歎不已」

어 이른바 南道 문인화를 창출시켰다. 후일 제주인 金光秋 등이 허건과 교분이 두터웠던³⁹⁾ 점도 허유의 제주내왕에서 비롯된 인연의 한 끝이라고 보아도 무리 없다.

이밖에 배소 내방하여 추사의 문하에서 공부한 사람으로 姜衛가 있다. 그는 후일 추사에 연원을 둔 北學의 맥을 이어 개화파에 접맥한 북학적 先進眼의 마지막 인물로 파악된다. 강위는 추사에게서 30세 이후까지 經意를 묻고 스승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추사가 유배되자 그는 유배지에서 3년동안 스승을 모셨고 北靑으로 移配되자 그 곳에도 따라가 계속 가르침을 받는다.⁴⁰⁾ 그럼으로써 추사의 高足으로 꼽히고 같은 추사 문하의 李尙迪를 계승한다.⁴¹⁾

제주도에서 추사와 강위의 관계는 도타운 애정의 연속이었음을 추사가 막내 아우에게 보낸 서한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는 스승과 제자가 한 집에 살며 風雨明暗을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강의하고 질문하였던 대표적인 모범이다.

姜生은 한갓 인물만 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품도 뛰어나게 아름다와서 형편없는 풍속을 가진 시골에서는 있기 힘든 사람일세. 적막한 가운데서라도 조금 위안을 얻을 수 있으니 다행이네. 저도 역시 아직 갈 뜻이 없고 계속 이곳에서 머물러서 겨울을 난다고 하니 먹여 살릴 방도가 심히 걱정일세. 두 그릇 밤이야 어렵지 않겠지만 가장 옷해 입을 한가지 일이 자못 마음 쓰일 뿐이라네.⁴²⁾

39) 高昌錫, 梁鎭健, 濟州島 流配에서의 勉菴 崔益鉉의 教學活動 研究, 『耽羅文化』, 第9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9, 參照.

40) 『姜衛全集』, 鄭健朝 序, 參照.

41) 『姜瑋全集』, 下, 「百年經術金秋史貳代詩名李藕船學有淵源推嫡派語無煙火續仙緣先生爲阮堂侍郎高足與詩則繼恩誦堂鳴于世」

42) 『阮堂先生全集』, 卷2, 「姜生非徒所在草人品絕佳未俗之希有者也幸於寂寞之中得以少慰伊亦姑無去意第此留之而過冬接濟之道甚悶兩孟飯不難而最是絲身一條路頗關心耳」

강위는 제주도에서 수발을 드는 동안 博學多識한 스승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으며 또 스승의 藏書를 열람함으로써 그의 공부는 깊고 넓어진다. 스승을 만나기란 쉽지 않고 책을 만나기도 쉽지 않다. 그러기에 학문에 뜻을 두는 사람은 천리를 멀다하지 않고 스승을 찾아 배움을 청하게 된다. 특히 강위는 스승을 통해 개화사상의 촉매구실을 하였던 『海國圖志』같은 先進思想을 접하게 되면서 개화의지를 가다듬게 되며 초기 개화파로서의 진로를 가늠하게 된다.

그러나 추사의 제주유배 동안에 맺은 師弟之情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것은 아무래도 이상적과의 관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적소에 내방은 안했지만 譯官으로 들른 中國에서 많은 책들을 구해서 적소에 보내주었는데 이들은 모두 추사가 평소 몹시 보고 싶었던 책들로 그의 감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이상적의 정분에 감동한 추사는 松柏 2그루가 서 있는 적거의 雲景을 그려 〈歲寒圖〉라 題하고 ‘藕船是賞 阮堂’이라고 自署한 뒤 題跋의 一文을 精楷로 淨書하여 제자에게 주었는데⁴³⁾ 이 題跋은 사제관계의 正道를 밝힘에 있어 不二의 好資이다.

지난해는 「만학집」과 「대운산방문고」의 두 책을 부쳐왔고, 올해는 우경의 「황청경세문편」을 부쳐왔다. 이는 모두 세상의 혼한 책들이 아니라 천만리의 먼곳에서 사들인 것으로 몇해를 걸쳐서 구한 것이지 졸지에 얻어진 것이 아니다. 또한 세상의 밀물같은 풍조는 오직 권세와 이득에 귀속시키지 않고 바다 밖에 귀양 온 초라하고 쓸쓸한 자에게 귀속시키기를 세상의 권세와 이득에 쏠리는 것과 같이 하다니 저 태사공이 ‘권세와 이득으로써 야합한 자는 권세와 이득이 다해지면 교분이 성글어진다’고 했는데 그대 역시 세상의 밀물같은 풍조 속의 한 사람으로서 초연히 스스로 특출하여 밀물같은 풍조의 권세와 이득의 밖에 있으니 아니 그래 나를 권세와 이득으로 본단 말인가. 태사공의 말이 잘못이란 말인가. 공자

43) 藤塚隣, 前掲書, pp. 451-456.

는 날씨가 추운 연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잎의 시들음이 뒤집을 안다고 했다. 사실 소나무와 잣나무는 사철을 통해서 잎이 시들지 않아 날씨가 추운 이전에도 한 소나무와 잣나무요, 날씨가 추운 이후에도 같은 소나무다. 그전대 성인은 특별히 날씨가 추운 이후를 지칭했으니 이제 그대는 내게 대해 전이라고 더함도 없고 후라고 덜함도 없다. 그렇다면 전의 그대야 지칭할 수 없지만 후의 그대는 역시 성인에게서 지칭은 한가지 잎의 시들음이 뒤지는 곧은 절조와 굳은 절개를 위했을 뿐 아니라 역시 날씨가 추운 시절에 마음에 느껴 사무침이 있어서다. 아아, 서한의 인심이 순박하고 후한 시대에 굽암과 정당시와 같은 어진이라도 빈객이 시세와 더불어 성하고 쇠했지만 하규의 작공이 문에다 방을 붙여 인심을 풍자한 처사는 박절함이 너무 했다. 서글픈 일이다. 완당노인은 쓰다.⁴⁴⁾

3. 秋史의 濟州流配 教學思想

1) 스승의 教育哲學

원악의 유배지 제주도에서도 것처럼 사제관계가 풍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추사의 學問觀에서 기인한다. 특히 위대한 스승을 만나지 않고는 교육에 관한한 그 어느 것도 가능치 않다는 것이 그의 교학사상의 핵심이다. 당시 제주목사였던 張寅植에게 보낸 서간을 보면 그러한 징후가 뚜렷하다.

사람의 재주란 각기 천분이 있고 당초에는 남·북의 한계가 없는데 특히 눈 밝은 사람의 개발·인도가 없었던 것이지요. ... 이 교장의 병폐는 안

44) 『歲寒圖』, 題跋, 「去年以晚學大雲二書寄來今年又以藪耕文編奇來此皆非世之尚有購之千萬里之遠積有年而得之非一時之事也且世之滔滔惟權利之趨爲之費心費力如此而不以歸之權利及歸之海外焦萃枯槁之人如世之趨權利者太史公云以權利合者權利盡而交疎君亦世之滔滔中一人其有超然者拔於滔滔權利之外不於權利視耶太史公之言非也孔子曰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松柏是貫四時而不亦者歲寒以前一松柏也歲寒以後一松柏也聖人特稱之於歲寒之後今君之於我由前而無加焉由後而無損焉然由前之君無可稱由後之君亦可見稱於聖人也耶聖人之特稱非徒爲後凋之貞操勁節而已亦有所感發於歲寒之時者也嗚呼西京淳厚之世汲鄭之賢賓客與之盛衰如下圭榜門迫切之極矣悲夫阮堂老人書」

일한 데에만 주저앉고 태산의 정상을 향하여 다시금 한걸음 더 내딛고자
아니 하니 매양 탄식하여 마지 않사되다.⁴⁵⁾

이는 마치 강희시대에 직예성 容城의 현령이 되자 그 고을의 선비를 모아 강회를 열며 '아무리 어리석은 남녀라도 모두 현인들의 자손이다'(愚夫愚婦皆賢人種子)라고 하여 교육의 근본을 일으키는 일이 급선무라고 하였던 趙士麟의 교육사상과 매우 유사하다.

인간의 文化는 실은 철저히 學習되고 繼承되는 것이며 문화수준의 지역적 차이는 인종의 才能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하여 개발되고 계승된 文化의 差異에 기인하는 것임을 추사는 철저히 믿고 있었다. 따라서 낙후된 문화수준을 끌어 올리고 묻혀 있는 재능을 개발하는 것은 스승의 인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제주도 같은 곳에서는 더욱 그러한 인도가 절실한 곳이었으며 스승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촉발되어야 할 지역이었다.

그는 제주도의 교육적 실정을 都都平丈의 무지⁴⁶⁾에 비유했으며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눈 밝은 사람 즉 스승의 개발 인도는 물론이요 나아가 그 개발과 인도가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었다.

대개 그들의 평소 견문이 예 삼가 촌락의 도도평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그럴 수 밖에 또 있겠소. 만약 관사의 존위에 처하여 큰 역량으로써 바
람을 일으켜 한 번 외치는 일이 있다면 齊가 변하고 魯가 변하는 것은
아마도 어렵지 않을 것 같이 생각되오.⁴⁷⁾

45) 『阮堂先生全集』, 卷4, 與張兵使寅植 「人才各有天分初無界於南北特無明眼人開導之耳
…果有慧識超異者否此中大病在安於惰欲向泰山頂上再進一步每不已」

46) 夢學訓長이 아들에게 『論語』를 가르치면서 都都乎文을 잘못 알고 都都平丈으로 가르
쳤다는 뜻에서 문자를 변변히 모르는 사람의 무지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47) 『阮堂先生全集』, 卷4, 與張兵使, 「蓋其平日見聞不出此三家村中都都平丈耳若有處官師
之尊以大力量順風一呼齊變魯變恐似不難」

당시 조선 최고의 문화수준을 향유하고 淸나라의 문화와 학자를 접하고 절해고도 濟州島로의 유배편력을 통하여 추사가 절실히 느낀 것은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욱 더 문화가 인간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천재는 거의 없고 평범한 재능을 타고 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그 평범한 재능을 비범한 것으로 바꾸는 것은 개인이 타고난 재능에 의해서라기 보다 차라리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의 계승 즉 教育에 의해서라는 것이 추사의 생각이다.

따라서 추사는 궁벽한 절해고도 제주도에서도 문화의 계승과 계발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였고 中人계층의 교육적 열의를 유난히 반가워하고 격려했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추사가 제주도에서 양자 商懋에게 보낸 서한 가운데 특별히 제주유생 李時亨을 부탁하는 글에서 잘 드러나 있다.

여기 이시형이란 사람은 나이가 젊고 재주가 뛰어난데 결단코 학문을 하고자 하니 그 뜻이 자못 예리하여 막을 수 없으므로 올려 보내니 함께 공부하여 보도록 하여라. 비록 그 견문은 넓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 같고 닮게 한다면 족히 이 곳의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뛰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가는 것은 배를 타고 가야 하므로 늦을 것 같다.⁴⁸⁾

추사는 교류하였던 인물들의 시적 재능에 대하여 유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익제 이래 조선의 가장 탁월한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은 김택영으로부터 제주서생 金于民에 이르기 까지 그 작품에서 받은 감흥을 詩化⁴⁹⁾하고 있어 시재에 대한 그의 감격과 감흥이 결코 최고 수준의 것만을 대상으로 하여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처지와 여건 여하를 막론하였다. 즉 그는 제주

48) 『阮堂先生全集』, 卷2, 「此邑李生時亨年少才逸 決意欲此學其志頗銳不可阻奪 使之上去試與同研雖其見聞不廣若使磨足以徹此地不讀者耳其行從船而去似遲緩矣」

49) 『阮堂先生全集』, 卷10, 贈金生于民, 參照.

도에서도 문학과 예술 나아가 문화에 대한 인식과 그 수준이 고양되기를 갈망하였던 것이다.

자기는 자신이 속해 있는 東洋文化圈의 頂上에 올라 그 문화의 始原과 脈絡 지향점을 가늠해 보는 것을 목표로하면서 문화에서 소외된 지역, 소외된 계층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정열을 아울러 가졌던 것이 추사였다. 이러한 까닭에 유배지에서도 문화에 많은 사람들의 내왕이 빈번할 수 있었다.

열악한 환경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문화에 제자들의 내왕이 빈번하다는 것은 師道가 존엄하다는 것과 관련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곧 교사의 권위문제이기도 하다. 유배지에서 추사가 제주인들에게 존경을 받은 것은 바로 추사의 덕행과 학문이 제주인들의 表率이 되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제주인들에게 바치는 교육적 관심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승에게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 크게는 엄격한 스승과 온화한 스승이다. 엄격한 스승은 자신에게도 엄격하고 학생에게도 엄격하다. 그러면서도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다. 온화한 스승은 차근차근히 타이르면서 언제나 온화하고 성내지 않는다. 그는 학생들의 愛戴를 받고 그의 온화함 때문에 친화감을 주면서도 스승으로서의 威望을 손상받지 않는 분이다. 추사가 바로 그러한 스승이었다.

따라서 추사는 地位指向的이기 보다는 課業指向的인 스승이었다. 지위지향적이 아니라 과업지향적인 것일 때 스승의 가르침은 철두철미 합리적 방안이 된다. 그렇지 못할때 스승의 가르침이란 우월감의 과시 정도에 머무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업지향적인 스승은 刻苦求學의 본질적인 문제로 가르침의 문제를 견지하게 되는 것이다.

생공이 설법하자 못 돌이 고개를 끄덕였다는데 이곳의 돌은 그 불성이 없는 건가. 다만 설법하는 것이 생공과 같지 못한 때문이겠지요.⁵⁰⁾

50) 『阮堂先生全集』, 卷 4, 與吳進士, 「生公說法衆石點頭此中之石其無弗性與特說法不如生公」

生公說法 頑石點頭⁵¹⁾의 예를 들어 제주도 형편을 거론하면서 都都平丈의 들 같은 무지를 깨우쳐주지 못하는 자신의 가르침에 관해 궁극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그것은 과업지향적 스승에게만이 가능한 내부통제의 정신이다. B.F.Skinner 이래 教育心理學의 성과가 시사하듯 정녕 가르침은 가장 중요한 교육의 독립변인이다. 따라서 추사는 교육에 있어서 가르침의 중요성을, 스승 역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력히 대변한 셈이다.

2) 經驗主義 教育哲學

이러한 추사의 교학사상을 관류하고 있는 경향은 근본적으로 경험주의적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先驗的 精神性 혹은 天賦的 능력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천부적 정신능력은 부단한 경험적 수련의 결과로서만 발현된다고 보는 것이다.

유교의 경전을 직접 섭렵하여 공자의 가르침을 깨우치고 불경을 읽어 석가의 가르침을 깨우치고 그밖에 무수한 전적들을 섭렵하면서 인간 정신의 실체를 체험하지 않고는 佛의 경지도 仙의 경지도 儒의 경지도 그 어떠한 정신적 경지도 터득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적 경지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적으로는 典據의 진위 여부 즉 實證性과 合理性이 무엇보다도 중시되는 것이다.

詩에 있어서 그것의 궁극은 왕유나 두보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지만 추사는 가까운 시대의 시인인 왕사정과 주이존으로부터 시작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그것도 천부적 재능이 두드러진 왕사정보다는 후천적 학습에 의하여 시적경지를 이룬 것으로 판단되는 주이존을 위주로 할 것을 권하고 있다.

즉 詩라는 것도 처음 생겨났을 때는 비록 개인의 타고난 재능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그 양식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문화로서 자리잡은 시점에 있어서 시작행위는 철저한 시문화의 계승이며 창조이다. 시문화의 역사적 흐름과 변화를 한 눈에 굽어볼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터득하지 못하

51) 梁의 高僧 竺道生이 虎丘寺에서 經을 강하면서 돌을 모아 청중을 가장한 바 그 돌들이 다 고개를 끄덕였다는 얘기에서 비롯되었다.

고서는 그러한 창조적 개척은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사는 前人에 의하여 정립된 학문적 체계나 학설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학설을 펴는 것을 극히 경계하였다. 적어도 앞서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자기의 영역이 개척되지 않으면 說 새우기를 금하였다. 자기의 영역 개척 과정이야말로 추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훈련 못받은 백성을 졸지에 風雲鳥蛇의 戰陣 속으로 몰아 넣는다면 그들이 능히 구울에 맞을 리가 있겠는가.⁵²⁾

따라서 자기의 영역 개척과 같은 교육의 과정이 없다는 것은 마치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로 구성된 烏合之卒의 軍營과 같으며 그것은 또한 제주도의 현실적 처지이기 때문에 추사는 거듭 후천적 수련 과정으로서 교육을 강조하였다.

추사의 이러한 선천적 재능과 후천적 수련에 대한 구분은 곧 체험적 수련을 강조하는 經驗主義的 教育에 대한 그의 원칙을 반영하는 또다른 논리 가운데 하나이다. 추사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인간 정신의 표출방식이라고 이해하였으며 따라서 문화양식에서 그 精神性을 파악하지 못하는 맹목적 행위 모방은 실은 문화행위의 틀에 매어 있는 것일 뿐 문화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행위에서 정신성은 다양한 방식을 취하여 표출된다. 그것이 곧 文化樣式이다.

따라서 다양한 제반 문화양식에서 중시되는 것은 문화양식이 인간 정신의 표출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인간 정신을 어떠한 방법으로 표출하는가 하는 사실 즉 樣式化의 原理이다. 추사의 교육론은 이러한 제반 문화양식은 그 양식 특유의 정신성 표출 방식을 가진다는 인식, 그리고 그 방식은 철저히 계승되고 공유되는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禮論

52) 『阮堂先生全集』, 卷4, 「是不教練之兵猝然驅入於風雲鳥蛇之中其能合穀歟」

의 교육적 기저와도 상통한다.

이러한 경험주의적 세계관은 일체에 대한 神秘主義的 認識을 극력 배격한다. 대개 스승의 가르침은 제자의 準備度(readiness) 여하에 의하여 촉발되거나 무효화되기 마련인데 특히 신비주의적 인식이란 준비도의 부실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특히 추사는 제주인의 그러한 신비주의적 인식을 매우 통박하였다.

流水巖 姜生이 내가 쓴 글씨 두어 장을 벽에 붙였는데 그 날 아침에 갑자기 무지개가 나타난 이상이 있어 마치 빛을 내뿜는 듯하니 보는 자는 놀라며 붓 정기에서 피어난 것이라 자랑하고 있다. 이것은 우연히 산곡 간에 정기가 저축 배설되는 바 있어 서로 감축한 때문이지 어찌 종이에서 무지개가 일어날 이치가 있겠는가. 이를 써서 島童에게 보이어 의심을 푼다.⁵³⁾

이것은 신비주의적 인식에 대한 질책임과 동시에 스승의 偶像化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經驗性을 중시하는 이러한 사유경향은 제주 교학활동에 있어서 추사의 핵심적인 교학사상이었다.

3) 책읽기의 教育哲學

추사가 유배지에서 이렇게 교육적 긴장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 그의 부단한 책읽기 때문이다. 그의 정력적인 책읽기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유배생활이 강요하는 閉鎖性에 상대하는 서적의 開放性 때문이었을 것이다. 서적의 개방성은 곧 정신의 개방성을 유도하며 따라서 유배적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개방성에의 천착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컸는데 특히 제자 李

53) 『阮堂先生全集』, 卷10, 「流水巖姜生以余書數紙貼之壁上其朝忽有紅見之異若放光然見者驚陀以爲筆精所發是偶然有山谷間精氣所蓄洩相感觸之寧有紙面起虹之理書此示島童輩以解之五臺蛾眉之佛燈亦類是也」

尙迪의 도움은 결정적이었다.

이상적은 來島는 안했지만 1843년 桂馥(未谷)의 『晚學集』 8권과 運敬(子居)의 『大雲山房集』 8권을 멀리 북경에서 구해 보냈으며 賀長齡(藕耕)의 『皇清經世文編』 120권을 부치는 등 書籍을 통해 적소에 있는 스승의 학문적 갈증을 채워주었다. 『晚學集』은 1841년 간행되었는데 표지에는 翁方綱의 題簽이 있고 卷 머리에 蔣祥暉의 '桂君未谷傳' 다음에 '助刻姓氏' 桂縣沈의 '識', 阮元的 '序' 그리고 孔肅山의 '後序'가 있어 桂馥의 經術을 보기에 매우 귀한 자료이다.

일찍이 제복의 학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던 추사에게는 귀중한 서적이 아닐 수 없었다. 또 『大雲山房文彙初集』은 1811년 간행하였고 2집 4권 『目錄凡雜文』 96편은 같은 해 長州의 宋揚光(吉甫)가 간행했지만 추사가 받은 것은 初集 4卷 뿐일 것이다. 『皇清經世文編』은 1827년 刊本으로 自敍가 있다.⁵⁴⁾

이밖에도 추사는 그의 아우나 다른 제자들에게도 책들을 부탁하여 읽었는데 그러한 책 부탁 내용의 流配書翰은 양도 많고 내용도 절박하다.

歷書는 … 七政帖, 如來帖, 隨送帖을 부쳐서 오는 편에 보내라고 하였는데 어찌서 꼭 보낸다고만 하는가. 藝海珠塵 한권을 뽑아 놓은 것은 곧 中星表 卷인데 아이들이 거두어 넣었는지 모르겠으나 가까운 편에 부쳐 보내주는 것이 어땠는가. 唐空帖 三卷은 그대로 도착했는데 이 세권에 그치는 것이 아닌데 오직 세권뿐이라고 한 것은 크게 괴상한 일일세.⁵⁵⁾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제주도에서 추사가 대했던 책들의 目錄을 정리해보면 대강 다음과 같다.

54) 藤塚隣, 前掲書, pp. 451-456.

55) 『阮堂先生全集』, 卷2, 與舍季相喜, 「歷書…七政如來隨送帖粘隨來送之何必早晚計也 藝海珠塵一卷之抽置者即中星表卷也未知兒輩收取而從近便付送如何唐空帖三卷依到而不止此三卷矣只是三卷云者大是怪訝」

- 本草：明나라 李時珍이 편찬한 『本草綱目』 52卷.
- 詩 醇：淸나라 高宗이 편찬한 『御船唐宋詩醇』 47卷.
- 律 髓：元나라 方回가 편찬한 『瀛奎律髓』 49卷.
- 書 畫 譜：淸나라 孫岳領 등이 奉旨贊한 『御定佩文齋書畫譜』 100卷.
- 周易折中：淸나라 聖祖가 御贊한 『御纂周易折中』 22卷.
- 藏 進 帖：明나라 萬曆 陳元瑞 刻의 『渤海藏眞帖』 8卷.
- 靈 飛 經：道經의 일종.
- 藝海珠塵：不分卷 48冊.
- 海 志：淸나라 魏源이 쓴 西洋文物 소개서인 『海國圖志』.
- 岐亭詩帖：蘇東坡가 黃州에 귀양가 있으면서 지은 詩帖.
- 淸愛堂帖：淸나라 劉 墉이 法帖으로 만든 『淸愛堂石帖』 4卷.
- 古器款識：鐵帖이 만든 金文圖錄 『十六長樂堂古器款識』.
- 漢隸字原：南宋 婁機가 편찬한 書學에 관한 冊.⁵⁶⁾

이렇듯 추사는 적소에서든 여러 書冊들을 대하고 있었는데 기껏해야 通鑑과 孟子에 불과했던 제주도의 서책형편에서는 추사의 장서 자체가 하나의 충격이었으며 격조 높은 교육적 강화였다.

이 가운데 『本草』를 두고 추사는 高·良·夫의 출현 이래로 처음 소개되는 鴻寶 즉 秘書라고 가치를 피력하면서 제주서생에게 빌려주며 가치가 더욱 고양되기를 갈망하였다.

本草는 부처 보내거니와 이 섬이 생기고 세 성이 나온 이래로 처음있는
 흥보로서 어버이를 섬길 수 있고 사람을 구제할 수 있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니 영원히 비장하여 무궁한 장래에 크게 이바지하여야 될 터인데
 장차 어떤 방법으로써 이 구구한 고심에 수응할려는지요.⁵⁷⁾

56) 이 目錄은 秋史의 流配書翰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57) 『阮堂先生全集』, 卷4, 與吳進士, 「本州茲寄付此島以還三性以來初有之鴻寶可以事親可以濟人可以延年圖所以永保藏秘嘉思無窮將何以酬此區區之苦心」

그런데 『본초강목』 이외에도 제주인들은 필요한 책을 돈을 거두어 모아 추사에게 사줄 것을 요청했던 것⁵⁸⁾으로 보아 새로운 책들이 추사를 통해 비로소 제주인들에게 소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추사의 책읽기는 비단 추사 자신에게만 국한되었던 작업이기 보다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제자들과 함께 하는 책읽기의 대표적인 예는 유배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특정의 책을 필요로 하는 제자에게 스스로없이 빌려준데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古器款識 一函 三冊은 듣자니 한 번 보고 싶은 뜻이 있다고 하여 이에 아낌없이 빌려주오자 하네. 뜻을 다하여 본 다음에 편 당는대로 돌려주는 것이 어떻겠는가.⁵⁹⁾

그러나 그가 유배지에서 대하고 있었던 서책들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책은 『海國圖志』이다. 『해국도지』는 淸朝의 魏源이 쓴 서양문물 소개서로서 청조말의 중국은 물론, 조선과 일본에도 큰 영향을 끼친 책이다. 이 책은 후일 『萬國政表』 등이 간행되어 풍부한 해외지식이 제공되기까지는 해외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입문서였다. 이 책은 단순한 世界地史書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세기 청국 公羊學派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상서로서 조선 말기에 들어 朴珪壽와 柳大致 등을 통하여 金玉均 등의 개화파에 영향을 주었다.

『해국도지』의 50권본은 1842년에 완성되어 1844년에 간행되었는데 추사는 1845년에 벌써 이 책을 제주도에서 입수하고 있다. 1845년 막내아우에게 보낸 서한에서 「해국도지는 요사이 좋은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있

58) 『阮堂先生全集』, 卷2, 與 俞季相喜, 「本草等三種書此中人聞之又醜錢雇人專此上送以爲輸致之地其意不可謂仕茲以裁書付去隨即堅裹以送如何如何」

59) 『阮堂先生全集』, 卷2, 與 申威堂觀浩, 「古器款識一函三冊聞有一閱底意茲以割愛奉迺盡情閱過隨便投還如何」

네. 그러나 눈 어두운 것이 이와 같아서 예전처럼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 아쉽기 짝이 없군⁶⁰⁾이라고 쓰고 있다. 그는 또한 이 책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책에다 베끼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는데⁶¹⁾ 유배 중 추사의 關心指向性을 말해주는 단적인 實例이다.

또한 그는 知友 權敦仁에게 보낸 서한 가운데서도 「해국도지는 꼭 필요한 책이며 나에게 있어서는 다른 집의 많은 보물과 맞먹는다」⁶²⁾고 쓰고 있다. 이렇듯 『해국도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근대조선의 개화사상을 낳는 한 빌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사의 이러한 노력은 비단 名望의 書冊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참고가 능하다면 제주의 邑誌에도 경주되었다.

이 고을 읍지 안에 運籌軒序의 大篇 문자가 있어 이는 동인의 사록문 중 큰 것인데 그 숨씨를 보니 옛법이 아직도 남아 있더군요. 혹시 이미 보셨는지 모르겠소. 행여 나를 위해 한 통만 베껴내어 보내 줌이 어떻겠소. 정하게 베껴 그르침이 없어야만 읽을 수 있을 거외다.⁶³⁾

추사의 책읽기란 궁극적으로 刻苦修爲의 교육정신이며 가치가 있다고 보는 책은 반복 연찬하여 완전히 이해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實學派의 독서방법이다.

4) 論爭의 教育哲學

추사의 책읽기는 정신의 개방성을 동반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적소의 상

60) 『阮堂先生全集』, 卷2, 與舍季相喜, 「海志好作近日消遺三去而眼花如此不得如前日之看讀可歎」

61) 『阮堂先生全集』, 卷2, 與舍季相喜, 「切欲抄錄空冊之大印札兩卷可以得送耶」

62) 『阮堂先生全集』, 卷3, 與權彝齊敦仁, 「海國圖志是必需之書在我似若他家教寶」

63) 『阮堂先生文集』, 卷4, 與張兵使, 「此間邑誌中有運籌軒序大篇文字是東人四六之大者見之古法尚存耳或已覽過耶幸爲我錄出一通惠之如何精寫無誤方可讀耳」

황이지만 주변의 정신적 상황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특히 論爭하는 방법에 의존 그러한 관심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표출하였다. 논쟁은 자신의 학문적 입지를 굳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더욱 발휘시키는 절호의 기회였다.

제자 외에도 추사는 당시 제주목사였던 李源祚와도 논쟁을 펼쳐보임으로써 그 특유의 진지함과 학문적 경지를 응변했다. 이원조는 憲宗 7年(1841)에 제주목사로 除授되어 2년반 동안 집무하였는데 이때 추사와 『尙書僞古文十六言』에 대하여 논변하게 된다. 추사는 淸의 閻若據가 그의 『尙書古文疏證』에서 논증한 『古文尙書』는 晋代의 僞作이라는 주장을 수용하였으나 이원조는 이에 반박하였던 것이다.⁶⁴⁾

원래 堯約거가 고문상서가 위서임을 고증하자 毛奇齡은 이에 반박하고 비판했지만 閻氏의 고증에 대적하지 못했으므로 위작이라고 확정되었었다. 상서고문이 위작이라면 위서에 근거해서 人道心을 거론하였기 때문에 宋儒의 人心, 道心說이 기초로부터 동요하게 되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⁶⁵⁾ 특히 老論係 추사가 그같은 입장을 취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다.

이 비슷한 시기에 추사는 당대의 大宗師였던 白坡와도 서신을 통해 논쟁을 벌였다. 즉 추사보다 19세 연장으로 禪·講·律風을 드날리던 당대 불교계의 거물인 백파에 의해서 먼저 禪論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추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어 초의가 본격적인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전개된 禪論爭이 바로 그것이다.⁶⁶⁾

특히 추사가 제주적소에서 벌인 백파와의 논쟁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辨妄證十五條’로서 그 주장의 요점은 백파가 불교의 法文이 아닌 유교 및

64) 『凝窩集』, 參照.

65) 梁啓超, 『清代學術概論』, 李基東 外譯, 聯江出版社, 1978, pp. 27-30.

66) 『阮堂先生全集』, 卷5, 與白坡, 參照.

세상속설이라도 자기류로 합리화시키려는 사고방식이 있으며 무엇이나 분리시켜 생각함으로써 터무니 없는 오해를 자아내게 하였고 또한 전통적인 그릇된 사고방식을 탈피하지도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의 이같은 학문적 논쟁은 자신의 학문적 입지를 근거하면서 한편으로는 학술논쟁을 통한 자신의 유배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대체로 學術論爭은 쌍방이 지니는 주장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면서 상대방의 이론적 주장을 깨뜨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장점은 더욱 발휘되고 단점은 천하에 공개된다. 이것은 학문의 발전에 매우 귀중하다. 더욱이 논쟁의 초점을 세상에 내걸어 공표하는 문체는 논쟁의 커다란 공헌이다. 무엇보다 추사의 공헌은 논쟁의 초점을 제주인들에게 공표함과 동시에 더불어 함께하는 論爭精神을 발휘시켰다는 사실에 있다.

우리는 추사를 실사구시 학파의 源流로 평가하는데 하나의 학파를 창설하는 일은 분명히 스스로 믿는 바가 있으며 그 학파의 취지를 견지하고 발휘시키고 다른 학파와의 학술논쟁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참된 진리추구의 학자적 자세이다. 한편으로는 다른 학설에 쉽게 동화되지 않는 정신이 또한 필요하다. 그러한 정신이야말로 그가 견지했던 실사구시의 태도와 일치되는 것이었다.

근본적으로 그의 관심은 비록 동양문화권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중국문화에 깊이 경도되어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조선의 문화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열망에서였으며 더 나아가 제주도와 같은 낙후된 지역의 낙후된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논쟁의 교육철학을 밑바탕으로 한 추사의 興學敎化의 노력으로 제주도에서는실학의 분위기에 입각, 교학적 쇄신의 계기를 맞게 된다.

第 3 章 結 論

추사의 판단을 따른다면 국가가 興隆하는 길은 爲政者의 윤리의식, 정치관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각 분야에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더욱 필요하다. 그것이 곧 教育意識인 것이다. 그의 교육적 관심이 아주 하잘 것 없는 자질구레한 것 그리고 미천한 사람들에게까지 미쳐 있음은 이를 단적으로 입증한다.

그러한 교육의식의 연장에 서서 추사는 유배지 濟州島에서도 교학활동을 통해 門下에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다. 따라서 추사의 제주 교학활동은 스승과 제자가 진실로 相感하면 단 하루의 만남이라도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관계로 이어진다(一日爲師終身不忘)는 것을 보여준 모범적 증거이다. 이들 제자들은 朝鮮後期 제주교육의 文風振作에 중요한 세력이 됨으로써 새로운 鄉黨文化 형성의 밑거름 역할을 한다.

이러한 추사의 제주 교학활동의 사상적 기저에는 특히 가르침의 정신이라는 측면에서 스승의 존재와 역할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그의 經驗主義的 認識論에서 비롯되고 있다. 아울러 9년여의 유배기간 동안에 다대한 책읽기의 정진을 垂範함으로써 교학활동의 諸장면에서 책읽기의 교육사상적 함의를 중요하게 재현하였다. 그러한 재현이 수동적인 것이라면 다른 한편으로 그는 論爭精神의 지속을 가열시킴으로써 교육사상의 또다른 능동성을 확보하였다.

추사의 濟州流配 教學思想은 조선후기의 시대적 문제의식과 제주유배의 상황적 문제의식의 결과 산출된 실학사상의 추사다운 한 면모라 할 수 있다. 스승의 역할 강조, 경험주의적 인식론, 책읽기, 논쟁정신의 교육사상은 따라서 추사가 처했던 당대 문제상황의 해결적 기반을 구축하는 探究와 摸索, 開拓과 克服의 방안이다. 추사는 말하자면 현실문제를 타결하는 契경으로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지속적인 자기개발 즉 教育을 강조한 것이다.

參 考 文 獻

- 『大典會通』
- 『朝鮮王朝實錄』
- 姜 瑋, 『姜瑋全集』
- 金錫翼, 『耽羅紀年』
-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 李源祚, 『凝窩集』
- 崔益鉉, 『勉菴集』
- 李萬桂, 『朝鮮教育史』上, 下, 서울: 乙酉文化社, 1949.
- 梁淳秘, 『朝鮮朝流配文學研究』, 建國大學校 博士請求論文, 1982.
- 梁鎮健, 『濟州教育行政史』, 濟州: 濟州文化, 1992.
- 尹絲淳, 『韓國儒學思想論』, 서울: 열음사, 1986.
- 丁淳陸, 『退溪의 教育哲學』, 서울: 知識產業社, 1986.
-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耽羅文化』(1~12號), 濟州大學校, 1982~92.
- 韓國教育史研究會, 『韓國教育史研究의 새 方向』, 서울: 集文堂, 1982.
- 玄相允, 『韓國儒學史』, 서울: 民衆書館, 1977.
- 藤塚隣, 『清朝文化東傳の研究』, 日本: 國書刊行會, 1975.
- Flitner, W., Allgemeine Pädagogik, Stuttgart : Klett-Cotta, 1950.
- Franco Venturi, Utopia a riforma nell'Illuminismo, Turin, 1970.
- Michael Kammen, ed., The Past before Us : Contemporary Historical Writing in the United States, Ithaca, 1980.
- Monroe, P., History of Education,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76.
- Natalie Z. Davis, Society and in Early Modern France, Standford, 1975.

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al Thought of Kim Jung-Hee through Exil in Che-ju Island

Yang, Jin-Geon

In Cheju Island, it was the intellectual known as an exile who led in advancing the claims of education. They demonstrate that education had to build on continuous teaching, that is, on educational activity.

Education is an worth-while activity. All activiy, needless to say, implies first of all an agent who is active rather than passive. And to be an activity something must go on for a time as well as involve skill and effort. The example of the tradition of educational activity being formed by a master and friends in short course between Chejuians and the exiles is an educational structure peculiar to Cheju Island.

The intellectual who made the most influential and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Cheju Island in the Yi dynasty was Chusa Kim jung-hee. From Chusa's viewpoint, educational activities were the outgrowth of problematic situations arising in "on-going" activities, that is in exil. Chusa emphasized that education was to aim not so much as storing the mind with information as at exercising and improving such knowledge-getting faculties of the mind as memory, reasoning, and the like.

The first dimension to be established in the Chusa's educational thought of exil was the importance of conducting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a master. The second dimension elaborated by Chusa was an emphasis on learning through the constant reading. The third dimen-

sion of Chusa's educational thought was a good example self-teaching through the dispute spirit. And the empirical dimension of Chusa was given still further definition and grounding in educational activities of exile. There can be no doubt that his empiricism was a powerful prop for the educational thought of exile which was in the making.